

2019

MCLEAN BIBLE CHURCH



*KOREAN
TRANSLATION*

“절망에서 소망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룯기 1 장 22 절)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의 장들 중의 하나인 룯기의 첫 장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한 이스라엘 사람이 흉년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압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점까지 모압은 멸시를 받았던 곳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에 살 동안 나오미의 남편과 그 두 아들이 죽었고, 그녀는 두 자부와 함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모압 자부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룯이며, 비록 나오미 자신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녀를 부양해주시리라는 소망을 품고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그 자부들에게는 모압 땅에 남아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르바는 남아 있기로 하였으나, 룯은 “그를 붙좃았더라” 하였습니다.(룯기 1 장 14 절)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나오미가 돌아 왔구나”하며 모두가 그들을 주목하지만,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 (히브리어로 ‘쓰다’의 뜻)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 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룯기 1 장 20 절).

나오미는 완벽한 황량함과 공허함의 느낌 외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의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에 돌아 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22 절) 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더 이상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는 추수의 때였고, 또 단지 추수의 때만 아니라 그것은 장차 룯과 나오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군가가 지금 암울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깊은 흑암의 날들에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광명을 비추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절망적인

환경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망이 충만한 환경으로 놀랍게 변화 시키신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들에 기초하여,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암울한 날 속에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 감”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 장 1-3 절)

우리가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시 놀라운 약속에 대해 읽으면서 — 나중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음 날 일어나서
확실히 어디에 있는지도, 또 그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체, 그의 가족을 데리고
그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질문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생 동안과 성경 전체에 걸쳐 (로마서 4 장과 갈라디아서 3 장 참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실제로, 창세기 15 장 6 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본을
찾아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는 정확한 성경의 믿음이란, 무작정 눈을 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며, 무의식으로 나아가면서 그 누군가가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 장 9 절)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만유의 주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 또는 강림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사항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이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 하나님 되심에 더욱 감사 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약속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보상을 위한 삶”

29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창세기 47 장 29-31 절)

창세기의 다 끝나갈 부분에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주고 받는 뜻 깊은 대화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도 불러 진 야곱은 아들과 함께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들의 가족은 큰 재산을 소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목숨이 다해 갈 무렵, "나는 여기에 장사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애굽에 장사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할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하신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창세기 12 장 1-9 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 그게 내가 속한 곳이구나” 라고 본질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애굽의 대부분의 번영을 가져왔던 곳인 것을 생각할 때, 야곱이 그 애굽에 묻히기를 거절한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 장 13-16 절)

그분이 우리를 또 다른 세상, 더 나은 본향을 곧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로 ,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셨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그것이 주는 모든 것으로 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이 세상의 부질없는 소유물과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점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의 특혜”

34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출애굽기 40 장 34-38 절)

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친히 보았던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친히 볼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구름이 움직이고
발행하면, 여러분이 발행하고, 그 구름이 멈추면, 여러분 역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집단으로 가는 길 단계마다 친히 그분의 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항상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강림과 특히 관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 장 14 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원문에서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성막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심을 암시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단지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덜 좋다고 생각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떠나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익"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그들에게 "보혜사" 또는 성령(요한복음 16 장 7 절)을 보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이나 불을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며,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보면 살리라 ”

4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 장 4-9 절)

하나님은이 성경구절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처방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반역과 원망으로 인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 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일상적 구원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세우라 하시고, 물린 사람들마다 그 것을 보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뱀에 물렸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후,
마지막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장 다시 뱀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전체에 하셨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또는 강림의 무대를 설정하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21 장의 말씀과 예수님의 강림의 목적을 연결시켜 주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 (요한복음 3 장 14-15 절)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들려 올려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하시는 지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많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또는 종교적 의무의 확인란에 그 일을 완수 했다고 체크 오프 할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집중해서 바라보며 사는 것이며, 그리고 신뢰하며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의로움이나 성과에 의해서가 아닌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신명기 18 장 18 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보다 더 큰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대언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반에 걸쳐 나타난 선지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라고 대언하였듯이,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언뜻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며, 그들 모두 역시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선지자에 대한 이 약속을 하신 모세는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는 이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신명기 32 장 51 절)

다행하게도, 신명기 18 장 18 절에서 장차 올 더 큰 선지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선지자는 죄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신약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사도행전 3 장 22 절; 7 장 37 절 참조). 그분은 아무 오류나 죄도, 불순함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가서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반대되게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대언하지만, 여전히 결점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계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최종적 말씀이 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 장 1-2 절).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죄의 악순환을 깨뜨리시고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15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사사기 2 장 12-15 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그에게서 떠나갔을 때, 그 죄의 댓가로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들려주는 무섭고 비참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로 움츠러들게 합니다. 또한 사사기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죄에 대해 어떻게 다루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잠시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이러한 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릴 그 분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세주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이스라엘의 사사들과 달리 완전하시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에 굴복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첫 책인 창세기 3 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그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로마서 5:18)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죄 된 본성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구속의 이야기 중간에 첫 인간과 같지 않은 또 다른 인간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분은 전에도 또 지금도 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죄에 굴복 당하지 않으셨고 오직 순결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 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친히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아무 흠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을 입고 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에서 끊어졌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남은 모든 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얻고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 2 장 12 절)

룻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1 일차 참조) 오늘의 말씀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룻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압 땅을 떠나 보리 추수 시절을 맞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보리를 주우러 나아간 룻은 우연히도 나오미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가 소유한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룻 2:3)

보아스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한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답”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룻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지, 혹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평안을 줍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분이 우리의 보호자시요, 공급자이시며 피난처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편 57 편 1 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 편 1 절)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아울러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핍박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으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시련과 위험속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핍박을 면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 장 10-12 절)

시편기자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은 다윗 왕의 대를 이어 장차 오실 왕을 가리킵니다. 이 ‘아들’은 모든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이유는 이 분이 세상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이 왕은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분은 왕 중의 왕 이시고 만물의 주이시며, 이 땅의 모든 왕과 권세자들과 백성들이 그 분께 경배하며 엎드릴 것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아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은 겸손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 보다 더 높게 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 장 9 절에서 11 절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 장 9-11 절)

이 말씀은 언젠가 중국의 시 주석도 인도의 모디 수상도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수상도, 독일의 멀클 총리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과연 엎드려 경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늦어 선택을 놓쳐버릴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세상 권력자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결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만물의 주로 그리고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통치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시편 2 편 12 절에 “그에게로 피하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한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죄와 사망을 이기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십시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주님의 구주 되심을 기쁨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미 믿는 성도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더 주님께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제사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40 편 6-10 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속죄제와
희생제물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사와 희생제물은 죄의 값, 즉 죽음을 대속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6 장 23 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 장 4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 장 4 절)

이러한 구약시대의 배경을 아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 40 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하고 그 율례를 마음판에 새긴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완전하고 흠 없는 희생제물이
되신 바로 그분 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단 한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 장 15 절). 하나님의 율례가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전에 행해진 모든 제사와 희생제물 보다 뛰어나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 장 5-14 절). 이전의 제사와 희생제물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드러져야 했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분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에 대해 히브리서 10 장 14 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 장 14 절)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1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2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3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편 74 장 1-3 절)

이 강하고 애절한 기도는 아프고 상처받은 상황에서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자기들을 기억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렇게 버림 받은 것같은 느낌에 동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당신을 잊으셨다고 느껴 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그때 어떠했나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시편 74: 1-3 말씀을 곰곰 히 생각해보면 조금은 당돌한 것 같이 들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하시냐고 묻는 것은 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백성들을 잊으셨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켜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의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들을 주님 앞에 놓고 주님께 그가 신실하신 것을 증명해 주시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구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기억"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 장 24-25 절)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자신의 언약 약속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은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그의 약속들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왕을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 말을 기억합니다.

54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 54-55 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그의 약속들을 지켜주시라고 부르짖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냐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처럼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진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버림 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세상 곳곳에 있는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잊혀진 것 같고 버림 받은 것이 느껴질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할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주의 의를 간구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찌어다 8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찌어다 9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로 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시편 98 장 7-9 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 만물의 관심을 끌어 들이는 것같이 말입니다. 이 순간은 그의 오심으로 인해 피조물이 영향을 받은 일들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합니다. 피조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하실 그 완성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완벽하고 최종 공의를 가져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오늘의 말씀속에서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심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루지 않아도 되는 듯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불의가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포악한 목적으로 어린 소년들과 소녀들을 노예로 팔고 사는 인신매매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서 임하여 주의 공의로 통치되기를 간구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의로 세계를 판단” (시편 98편9절) 할 것이므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기뻐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 옴소서” 라고 울부짖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20절)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신 복된 소식의 이유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온전한 삶을 사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로마서 3장26절). 이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며 기뻐합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인신매매와 대량학살,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의 핍박과 박해로 찬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고뇌하면서, 그 힘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주님

18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9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20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21여호와와 이름의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22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시편 102장 18-22절)

이 성경구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존귀하시지만,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도우려 내려다 보십니다. 그 분은 죄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십니다.

이 얼마나 좌절과 속박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장래 세대에게 그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탄식을 들으시며 해방시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강림의 목적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18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 장 18-19 절)

높으신 보좌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는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온전히 사람이며 온전히 하나님이신 구세주 되신 분이 우리를 속박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이기로 정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러한 진실을 알기 원하시는지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와 이름의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 (시편 102: 21-22), 찬양과
높여 드림은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해야 항상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안에서 확연히 나타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
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 성취된 소망 ”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 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 니라.

(잠언 13 장 12 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것은 온 인류 역사를 통해 온 인류가 갈망해 온 바로 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하게 할 그 누군가를 갈망해 왔습니다. 오늘의 잠언이 상기시켜 주듯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을 " 상하게 "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될 때—그로 인한 아름다움, 기쁨, 환희가 곧 '생명 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곧 강림절의 이미지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기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오신 것을 기뻐 합니다! 평강과 기쁨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세상의 고통과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이—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 장 35 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또 그분과 옳은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잠언 13 장 12 절) 되는 것 대신에, 생명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과 평강과 소망으로 안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 재림 하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그분께 찬양 할 날을 고대합니다. 그분과의 평강과 안전함과 친밀감을 누리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친교를 우리는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소망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신실하게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속하심”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 이니이다
(룻기 3 장 9 절)

이제, 우리는 룻기(1 일과 8 일 참조)의 셋째 장에 이르렀는데, 이 책에서 핵심 단어 중 하나인 “구속자” 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첫 표지부터 마지막 표지까지 구속사의 이야기라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구속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당신의 보호 아래로 그들을 데려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것을 룻의 요청에 보아스가 응하여 룻을 위해 한 일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가 됨 이니이다”.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룻과 그녀의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며, 그의 나오미의 가족과의 인척 관계로 인해 그는 특별하게 이 일을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5 장 48-49 절 말씀에 따르면, 기업을 무를 자, 즉 구속자는 (여기에서 말한 의미로) 가까운 근족이어야 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그분의 보살핌 아래 우리를 있게 하시고 부양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신 구속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우리를 그분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마련하신 완전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보아스가 룻을 위해 했던 일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놀라우신 방식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구속자에 의해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 이시며,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진 가정환경에 상관 없이 혹은, 룻처럼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 장 7 절)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속에 대해 감사드리며, 아직 복음을 믿지 않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기묘자, 모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 장 6 절)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아들, 한 아기를 약속하셨을 때, 이 아기의 칭호 중 하나가 "기묘자, 모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든지 못 깨닫고 있든지, 권고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헤쳐 나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구합니다.(또는 최소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한 도움과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고를 구하는 것은 겸손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는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고를 구하게 되면, 심지어 우리가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 그들의 조언은 늘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믿을 만한 친구나, 조언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는 나중에야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따라서 우리를 권고해 준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타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심지어 최고의 조언 마저도 (동정심으로 말하지만)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는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완전하신, 신뢰할 수 있는 모사,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분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 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그는 조언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며, 선하고 옳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하지만 죄 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마치 우리가 그분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지고하시고,더 나은,또 훌륭하신 지혜를 가지신 기묘자인 모사가 계십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의 지혜에 순종하고 수용 할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 전능하신 하나님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 장 6 절)

어제 우리는 이사야 가 예언한 그 아기가 " 모사"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 이 아기에게 주어진 두 번째 칭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울 것입니다.

뚜렷하게, 이분은 평범한 아들이나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탄절의 몹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보다 더 큰, 또는 떡 두덩어리와 생선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일보다 더 크며, 성경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성탄절에 축하하는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사람이십니다. 참으로 신비가 아닙니까!

그러나 신비의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고 (히브리서 4 장 15 절). 동시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일시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 사항에 합당하신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온전히 사람이신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진리를 부인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평강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시고, 그 아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합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웁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슬람과 같은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 장 6 절)

어깨에 정사의 메고 통치자가 될 아들, 그 아기에게 이사야가 준 세번째 칭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 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아기이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에 우리는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자로서의 이 아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최상의 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 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의 이사야서 에서 관직인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며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2 장 21 절을 강조함). 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공급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 하여 주었으며 ” 라고 합니다. (욥기 29 장 16 절을 강조함).

좋은 아버지는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고 싶어합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랑을 가진 완벽하지 않은 아버지이지만 저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만은 어느 누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17 일자 참조) 이자, “영원하신 아버지” 가 되시므로 완벽하게 저희를 사랑하실 수 있고 부양하실 수 있고 돌보실 능력과 마음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의미에서 그분은, 그야말로 완전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아버지일지라도 그들이 완벽하지는 못하므로 많은 이들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완전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지혜와 자비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롭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 평강의 왕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 장 6 절)

이사야 9 장 6 절의 약속된 아기에게 주어진 네번째 이자 마지막 칭호는 “평강의 왕” 입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혼돈과 전쟁, 갈등, 분열, 적대감, 증오, 상처, 고통과 비애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 그의 통치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옵니다.

이 지상의 왕들에게 완벽한 공정함과 정의, 그리고 완벽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왕은 이 세상에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는 평강의 왕입니다. 언젠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아기는 완벽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21 장 1 절부터 5 절은 그 완전한 평화를 담고 있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 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 계시록 21 장 1 – 5 절)

이것은 너무 좋은 일이어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전쟁이 사라지고; 저희 마음에 애통함이 사라지고; 저희 육체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더 이상의 절망도 없고; 갈등과 분열도 없고;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적대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온전히 최후까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그들은 그분과 함께 평강과 기쁨, 정의와 공정함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이 세상에 전쟁에 짓밟힌 지역들에 평화를 가져 오시고, 그 전쟁의 폐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 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 시리니

(이사야 11: 1 – 2)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가 언급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은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로부터 와서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왕족의 한 “가지”로 나서, 예수님은 “결실할 것이요”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들의 열매, 셀 수 없이 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수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구속 받고, 변화 받으며 하나님과 옳은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 장 22 – 23 절). 그와 같은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께도 강림하게 되십니다. (이사야 11 장 2 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께 강림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 장 16 절)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유일무이하시며, 영광스럽게 유일무이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셨기에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서는 저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으므로 그로 인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의미는 주님의 성령이 – 지혜와 통찰의 영, 진언과 권능의 영, 여호와와 지식과 그를 경외하는 영 –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 그가 성령으로 저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에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을 위해서 기도 합시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애가 3: 19 - 24)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중의 하나로, 고통 받는 곳에서 진정한 소망을 애처롭게 간구하면서 기록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도하는 책인데, 이 특정한 애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죄의 결과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혼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과 같은 그들의 심령이 “낙심하여” 움츠려 들 때, 그들은 그들 마음 중심에 소망을 줄 만한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확고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우리 역시 이 진실을 상기하여야만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고통속에 있거나 저희 심령이 낙심하여 움츠러드는 시기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음 시편의 저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 하소서!

(시편 40 편 11 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하신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 이시여, 그분은 여러분께 항상 신실하십니다. 비록 재난의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강림절을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다면,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날마다 새로운 자비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을 지를 숙고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야말로 형편없이 절망적인 존재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새로운 자비의 샘물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재난이나 승리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망이 유지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괴로움에서 축복으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찌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 장 14 절)

여러분은 나오미라는 한 불모의 이스라엘의 여자를, 룻기의 시작에서 부터 언급된 것을 (1 일자 참조)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녀 자신은 나오미라고 불러 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라라고 불러 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그녀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서 나오미는 쓰라린 불모의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저주받은 모압 땅에서 같이 나온 며느리인 룻 외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삼 장 이후 부터 는,주님께서 나오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기업 무를 자(보아스)로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이제 나오미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두게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손자는 다윗의 왕의 아버지가 될 이새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족에서 만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 장 1 절) 그 누구도 이 보다 더 놀라운 각본을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역시 룻기 1 장의 나오미와 같이 쓰라리고,황량하며,고통으로 인해 절망을 경험해 본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괴로움이 그 마지막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안에서 인내 할수 있게 됩니다; 그 황량함이 이야기의 끝이 되지도 ; 지겹도록 들어온 절망과 좌절이 더 이상 최종의 말들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으므로, 그분께 소망을 둔 이상 이제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안타까워 슬퍼하는 시간들이 오기도 하지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 장 4 절),는 말씀과 그분이 마지막 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죽음이 없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 장 1-4 절).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추게 하실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괴로움을
축복으로 바꿀 권능도 역시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모든 시험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

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 장 1-4 절)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사역의 요약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시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였던 그 분이십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강림절기에는,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구약의 성경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어, 창세기 3 장 15 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처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려는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파괴되고, 쫓겨 난 망명생활에도 이사야 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통치하러 올 구세주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의 예언 후, 사백 년 동안의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후 적시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우주세계를 주관하시는 왕,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것을 두고, 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그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초림 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한 그분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영원히 그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면전에 있게 하려고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 주셔서, 그 구속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보여주심”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 하노니

(요한일서 4 장 14 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싶을 때, 그는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절의 그 참 진리를 강조함으로써 합니다: “...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 이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 장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참 신자들에게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5 장 13 절) 사도 요한이 이 일을 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일깨워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지는 그 확신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늘 불완전한 순종이나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 이니라. (요한일서 4 장 10 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는 사실은 성탄절이 다만 소망하는 생각이나 무슨 맹목적으로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옛 성탄절 찬송가에 있듯이,

육신에 가려진 신격을,
성육신 하신 신격을 환호 하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 장 8 절)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과 화목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 장 9-10 절)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요한일서 4 장 14 절) 자신 있게 증거 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에 대해 찬양할 때, 그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 로다 .

(요한계시록 22 장 1-5 절)

우리가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그분이 초림 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분의 영을 통해 지금 우리는 새생명을 맛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영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시해 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 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 장 9 절)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오는 축복은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그 때, 그분은 요람에서 있는 아이가 아닌 말을 타신 왕으로 나팔소리를 울리며 오실 것입니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잘못된 것을 옳게 하실 것이며,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불의를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재림은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어 우리는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또 그 날을 위해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것은 머나 먼 일처럼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은 그 날이 진실로 올까 하며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의심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 구세주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기도 할 점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고, 죄와 불의를 종식시키시며, 또 여러분을 사용하시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구속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